***PRESS INFORMATION***

|  |  |
| --- | --- |
| **보도 일시** | **2025. 4. 3 배포 시부터 보도** |
| **사진 설명** | **LS전선 동해 사업장 모습** |
| **문의** | **주호찬 차장(010-8553-7904) / 뉴스룸(**[**http://news.lscns.com**](http://news.lscns.com)**)** |
| **LS에코에너지 본사 강원도 동해시 이전,**  **해저 케이블 사업 확대 본격화**  **■ LS전선과 해저 케이블 사업 시너지 기반 마련**  **■ 신재생·해상풍력 중심 에너지 포트폴리오 확대**  **■ 고부가 케이블 수출 확대 등 ‘24년 최대 실적 갱신**  LS에코에너지(대표 이상호)는 3일 이사회를 열고 본사를 서울 LS용산타워에서 강원도 동해시 LS전선 동해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정관 개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본사 이전은 해저 케이블 사업 거점 확보와 LS전선과의 협업 시너지 강화를 통한 성장 기반 마련의 일환이다.  LS에코에너지는 최근 베트남 산업통상부 장관과 국영기업 페트로베트남과 함께 해상풍력 프로젝트 협력을 논의했다. 이 사업은 베트남 해상 발전단지에서 생산한 전력을 싱가포르로 송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LS마린솔루션과의 공동 참여를 검토 중이다.  또한 지난 26일 주주총회에서는 해상풍력 및 에너지 관련 사업을 정관에 추가하고, 해상풍력특별법과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등 정책 흐름에 대응한 포트폴리오 확대에 나섰다. 향후 LS머트리얼즈, LS마린솔루션 등과 협력해 핵심 공급망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상호 LS에코에너지 대표는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가 재생에너지 허브로 부상하면서 해저 케이블이 핵심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다”며, “본사 이전을 계기로 글로벌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LS에코에너지는 지난해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에서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AI 데이터센터 수요 증가와 전력망 확충 흐름에 발맞춘 빠른 시장 대응, 유럽·미국 중심의 고부가가치 케이블 수출 확대가 실적을 견인했다. | |